

더불어 **민주당** **민생 · 경제 대도약 추진단 보도자료**

보도일시

즉 시 가 능

배포일시

2026. 03. 22.(일) 07:00

더불어민주당,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 출범… 국민 제안 바탕으로, 국민 삶에 착! 붙는 공약 발굴

- **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, 프로젝트 첫 출범**
- **6.3 지방선거 국민참여형 공약 발굴 본격 가동**

- 더불어민주당(이하 민주당)이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고,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공약 발굴에 나선다. 기존 하향식 공약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정책 의제의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국민주권형 공약 모델이다.
-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는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(단장 김태년 의원, 총괄 매니저 민병덕 · 이소영 의원)이 6·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내 3개 분과 중 가장 먼저 출범하는 국민참여형 TF다. 추진단 내 민생 해결단과 혁신실행단은 순차적으로 구성 · 활동할 예정이다.
- 프로젝트 명칭인 ‘착!불’은 국민의 삶에 착! 붙는 공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. 공식 슬로건은 “나에게 착! 붙는 공약,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천합니다”다. 민주당은 국민이 생활 속 문제와 대안을 직접 제안하면,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공약화 및 실제 정책 변화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.
-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. 국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. QR 코드는 민주당 홈페이지와 전국 현수막으로 게시될 예정이다. 제안 대상은 교통, 복지, 청년, 여성, 환경, 지역 현안 등 생활밀착형 전 분야로,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접수받는다. 접수된 제안은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의 공식 검토를 거쳐 전담 위원과 1:1로 매칭되며, 이후 의원이

제안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공약을 구체화하게 된다. 최종 채택된 공약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식 반영될 뿐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.

- 민주당은 오는 3월 24일(화)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 런칭 행사를 개최하고, 6·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 참여형 공약 공모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.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대표도 참석해 프로젝트 출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.
- 이번 런칭 행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QR코드를 스캔해 공약 제안 절차를 시연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된다.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24일(화)까지 전국 계첩을 완료할 예정이다.
-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“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민생이다.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.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는 그 출발점으로,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제안이 실제 공약으로 만드는 데 핵심이 있다. 국민이 제안하고,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검토하고, 의원이 끝까지 공약으로 완성하는 국민주권시대형 공약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·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 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선거용 단기 공약 발굴에 그치지 않고, 국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정당이 이를 제도화하는 상시적 국민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.

※ 문의

- 김태년 의원실 (황현진 보좌관, 010-5456-2271)
- 민병덕 의원실 (김대경 보좌관, 010-3201-9872)
- 이소영 의원실 (정선호 선임비서관, 010-4100-8632)

[별첨1]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 현수막 시안

[별첨2] <착!불 공약 프로젝트> 백드롭 시안

끝.